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창식, 서기관 김지훈
(044-200-2135)

니카이 일본 아베 총리 특사(자민당 간사장) 접견

- 이낙연 국무총리는 6.12(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아베 총리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하고, ▲ 양국관계 발전, ▲ 북한문제 협력, ▲ 스포츠·문화·인적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니카이 토시히로 특사는 일본 자민당 간사장(중의원 11선)으로서, 아베 총리 특사 자격으로 6.10(토) ~ 6.13(화) 일정으로 방한

- 일본전국여행업협회장으로 금번 방한시 일본여행업협회(JATA) 및 전국여행업협회(ANTA) 관계자 등 360여명 동행
- 2012 여수 엑스포 당시 일본 여행업계 인사들을 동행하고 수차례 방한한 바 있으며, 2015.2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1,500여명의 '한·일 우호 교류 관광단'을 동행하고 방한

- 이 총리는 니카이 특사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일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지혜를 모아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니카이 특사는 이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일본에 있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매우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하면서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이 총리는 니카이 특사가 이번에도 일본 여행업계 인사들을 대거 동행하는 등 그간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금번 방한시 양국간 우애와 박애를 상징하는 목포 소재 보육원 「공생원」을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니카이 특사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공생원 방문도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간 교류·협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공생원 : 日 고치시(시코쿠 지방 남부) 출신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가 1912년 한국(목포)으로 건너와 윤치호씨와 결혼 후 공동 운영한 고아시설(1928년 설립)
- 윤학자 여사는 6·25 전란 속에서도 약 3,000명의 한국인 고아를 보육, 1963년 우리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국민장 수훈 / 1967년 일본정부 훈장 수훈

□ 아울러, 양측은 북핵·북한문제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동 계기 양국간 교류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 동 면담 후 니카이 특사 일행과 만찬을 갖고, 양국관계 및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